

진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은행-NH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협약

진안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전북은행 김태구 부행장, NH농협은행 변성섭 진안군지부장을 비롯해 진안군 소상공인 관련 민간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고 관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진안군은 6억원의 출연금과 최대 5년간 대출이자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고,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억5000만원을 출연해 진안군과 함께 총 1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게 되



진안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3-8405)에 확인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그동안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번 특례보증 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안전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수=우태만 기자

제2회 계북 꼭두인형극제 개최

장수군, 23~25일 다채로운 공연·체험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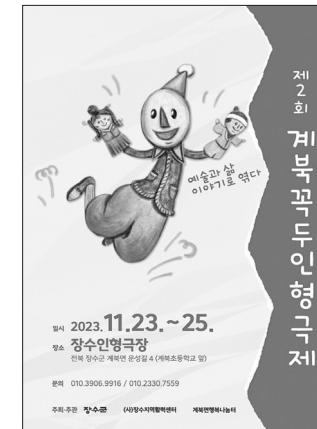
장수군 예술·문화 축제 중 하나인 제2회 계북 꼭두인형극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계북면 행복나눔터에서 열린다.

계북 꼭두인형극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계북면 행복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계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계북고사리인형극단의 <너는 특별하단다> 공연과 계북면 인형극단 누령소의 <엄마미아>, 초청공연인 극단 이야기원정대의 <먹방이 점>, 극단 또 봄의 <창고모탱이 손인형극> 등 다채로운 인형극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인형극 공연과 함께 신나는 베벌팡팡의 미술공연, 그림책 <엄마미아>의 김동성 그림작가의 강연 및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 행사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형만들기 등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 예술과 창작에 관심



제2회 계북 꼭두인형극제
일시: 2023.11.23.~25.
장소: 장수군민극장
전석 창구온라인 예매(온라인 예매 4개월 전 예매)
문의: 010.3906.9991 / 010.2330.7559
주최: 주관: 장수군
제작: 장수군민극장
제작: 장수군민극장

있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제2회 계북 꼭두인형극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동절기 과원 관리 기술지도 나서

무주군은 직접 과수 현장을 찾아 과일나무와 과원 상태 등을 살피며 맞춤형 영농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갑자기 추워지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서 과일나무 저장양분 축적이 적어 발생할 수 있는 동해와 다음 해 뱃게 월열매가 불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6개 읍면 각 마을을 순회하며 시비 상태와 방법, 병해충 방제 등의 기본 관리부터 수확 후 과원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별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수확 후 과원 관리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자 다음 농사를 시작하는 필수 영농작업인 만큼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자 다음 농사를 시작하는 필수 영농작업인 만큼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확이 완료된 과원은 나무 수세에 따라 3~5% 요소 염증증상과 함께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한 관수를 해야 한다”며 “밀거름은 내년 초에 이용할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잎이 떨어진 후 바로 뿌려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름을 주는 양이 많으면 2차 생장을 일으켜 동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 과원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해서 양과 시기를 조절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외 청년 대상 ‘진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진행

진안군 귀농귀촌센터가 관외 청년 8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12월 15일 까지 4주간 진안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비 귀농귀촌 청년들의 한 달 살기를 통해 진안군에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프로그램에는 월니스, 지역 일자리 탐방, 청년 마스터플랜&창업 계획서 작성, 귀농귀촌 전문상담, 입주민 반상회 등을 경험하며 한 달간 꿀벌집에서 살아보기

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승현 박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창업 관련 내용들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멘토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길잡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진안군은 KBS 최수종·하희라의 세컨하우스에 방영된 세컨하우스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금징수·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다변화 필요”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문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다. 암류 등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2024 무주군의회에 준비가 한창인데 정작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두통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 용답면 지사협·취약계층 밀반찬·생신상 지원

진안군 용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자원봉사단 회원들은 지난 15일 사단나눔 운동의 일환인 행복사랑플러스 통해 취약계층(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50가구를 대상으로 4분기 밀반찬 지원 및 생신상 지원사업을 펼쳤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밀반찬 및 생신상 지원사업은 행복사랑플러스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번 4분기는 김장김치를 비롯한 3종류의 밀반찬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고, 생신상 지원은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12명을 대상으로 케이크를 전달했다.

‘행복사랑플러스’는 용답면, 용답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자 협약을 맺어 협업하는 사업으로 용답면은 행정적 지원 및 홍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원대상자 발굴 및 배분, 공동모금회는 기부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맡게 되며 용답면 내의 복지여건을 지역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지역특화사업이다.

2023년 모금 목표액은 1000만 원으로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이장협의회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향우회 등에 홍보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계면,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 회의·간담회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은수·임재성)는 16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와 함께 인적 안전망 구성 및 복지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복지마차 1차 회의에서는 오지마을로 선정된 두 마을(풍저마을, 양천마을)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과 안정협의체 역할 부여, 사전 예찰 활동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계면은 협의체 위원, 해당 마을 이장 그리고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및 춤형 복지팀의 추천으로 대상 기구를 선정하고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예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장수=고판호 기자